

삼엄한 ‘베이징’

中, 열병식 앞두고 계엄 수준 통제로 도심 적막강산

‘위대한 승리’ 플래카드…무장경찰 등 수십만명 동원설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은 수천만 명이 생활하는 초거대 도시다. 등록인구만 20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체제의 최대 이벤트가 될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도시는 이례적으로 한산해 ‘적막강산’까지 감돌았다. 평소 같으면 꼬리를 문 차들로 꽉 막혀 있어야 할 시내 고속도로는 시원하게 뚫려 있었다. 많은 차들이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훌쩍 넘겨 운행했다.

이는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열병식 교통관제’를 우려해 많은 사람이 차를 갖고 나오는 것을 포기한 데다, 시내 중심가 건물들이 아예 출입 차단 조치를 내린 탓이다.

사무실이 열병식 부대인 텐안먼(天安門) 광장 부근에 있다는 한 회사원은 “(열병식 전날인) 2~3일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진입이 아예 폐쇄된다면서 아예 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부터 베이징 도시는 사실상의 ‘위수(衛戍)지역’으로 편입됐다. 텐안먼광장 반경 수km 일대에서는 엄격한 교통관제와 주요건물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광장을 관통하는 지하철 운행도 중단됐다.

일반인이 걸어서 텐안먼 광장이나 그 부근에 있는 창안제(長安街·베이징을 동서로 관통하는 중심도로)에 접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들 도로는 행사 당일 열병부대가 행진할 예정이다.

광장에서 약 1km가량 떨어져 있는 왕

푸징(王府井), 첸먼(前門) 등의 쇼핑가도 잠정 폐쇄됐다. 도심의 많은 식당과 상점이 4일 이후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는 공고문을 내걸었다.

무장경찰·공안·자원봉사자 등을 합쳐 최소한 수십만 명의 인원이 이번 열

병식 경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중국의 일부 인터넷언론은 이런 삼엄한 통제조치를 ‘국부적 계엄’(戒嚴)이라고 표현했다.

도시의 움직임은 둔해진 반면, 열병식 분위기는 최고조로 치달고 있다. 관영 중국중앙(CC) TV를 비롯한 중국언론들은 이른 아침부터 열병부대의 최종 훈련 장면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내보냈고 항일전쟁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방영했다.

러서리 자동차 등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한 라디오방송은 항일전쟁 시기에 어떤 차종들이 활약했고 이 차들이 어디에서 제작됐는지 등을 소개했다. 대형빌딩·육교·육외 스크린 등 시내 구석구석에서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대회’, ‘위대한 승리’ 등이 적힌 대형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열병식이 열리는 날 베이징에 스모그가 없을 것이라는 소식도 중국을 고무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전승 70주년 열병식이 열릴 천안문 광장 앞 도로에서 2일 베이징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시민과 함께’

기념식 1만9200명 초청…광장주변엔 관람용 의자 4만6천개

중국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전승기념 열병식에 시민 1만9천200명을 초청했다고 중국 언론이 2일 보도했다.

법제만보에 따르면 텐안먼(天安門)에서 거행되는 열병식 행사준비를 맡은 베이이오성톈(北奧盛典)유한공사의 루젠강(路建康) 대표는 광장의 국기게양대 양쪽에 처음으로 시민관람대가

설치돼 1만9200개 의자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이 의자는 오로지 시민들 관람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그는 베이징과 교외 거주 시민들이 초청을 받았으며 대부분 가구 단위로 초청을 받아 어떤 가구는 3명, 어떤 가구는 3대, 혹은 4대가 관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시민들을 초청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텐안먼 광장 주변에는 시민 관람용 의자를 포함해 모두 4만6000개 의자가 홍·황·녹·남색 구역에 각각 배치된다.

관람용 의자 제작을 맡은 베이이오성톈은 이 의자가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텐안먼 등 오래된 유적지 설에 손상이 가지 않게 설치됐다고

밝혔다.

또 오래 햇빛에 노출돼도 뜨거워지지 않고 접이식으로 돼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에도 편리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열병식 행사 당일에는 의자 수만큼 서비스팩이 제공되며 팩 안에는 생수와 오성홍기(중국국기)·소염제·모자·티슈 등이 들어간다.

또 열병식 당일 광장의 국기게양대 양측 관람대 뒤편에는 풍선을 담은 70개 상자가 배치된다. 각 상자당 1000개씩 모두 7만개의 풍선을 열병식 후반부에 하늘로 날려보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간토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일본인들 살인죄 아닌 소란죄로 기소…풀려나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증언집

일본 간토(關東) 대지진(1923년 9월 1일) 당시 조선인을 학살한 일본인들이 살인이 아닌 소란죄로 기소됐고 그마저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관계자 증언이 공개됐다. 또 일본 검찰과 경찰이 결정적인 증인을 심문하지 않거나 진실을 말하지 말 것을 회유하는 등 사안에 대한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도쿄지부가 학살 92주기를 맞이한 1일 펴낸 증언집에 따르면 대지진 사흘뒤인 1923년 9월 4일 당시 사이타마(埼玉)현 혼조(本庄) 경찰서 순사였던 아라이(新井)씨는 조선인 수십명이 일본인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되는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다.

아라이의 증언에 의하면 학살 14일 후인 1923년 9월 18일 사건 관계자의 검거가 이뤄졌지만 피의자들은 살인죄가 아닌 소란

죄 적용을 받았다.

학살에 관여한 수백명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몇명 있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복역한 사람은 3~4명에 그쳤던 것 같다고 아라이는 증언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학살의 모습에 대해 증인들에게 최대한 묻지 않으려 했다. 특히 사건의 전체 과정을 지켜본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아라이는 소개했다. 아울러 ‘안도 형사부장(경찰로 추정)’으로부터 ‘실상을 증언하지 말고 피해자가 조선인과 일본인 반반이었다고 증언하라’는 등의 강요를 받고 그대로 따랐다고 아라이는 밝혔다.

간토대지진 발생 후 혼란스런 상황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고 다닌다’는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도쿄, 지바(千葉)현, 가나가와(神奈川)현 등 간토 일원에서 조선인 수천명이 일본군과 자경단 등에 학살됐다.

위기의 ‘셴겐조약’

난민들 서유럽·북유럽행 수단 전략…EU 원칙 ‘휘청’

검문검색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도록 한 유럽연합(EU)의 셴겐조약이 난민 사태로 위기에 처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최고의 성취 중 하나인 셴겐조약이 1995년 체결된 이래 테러와 이민자 유입 등 여러 난제를 겪어왔지만 조유의 난민사태로 전례 없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력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하나 된 유럽을 강조하고자 만들어진 셴겐조약이 이제는 난민들의 서유럽 및 북유럽행을 도모하는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셴겐조약은 애초 벨기에와 프랑스·독일·룩셈부르크·네덜란드 등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회원국이 1985년 룩셈부르크 셴겐에서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및 여권검사 면제에 합의하면서 출발했다.

1990년 조약이 체결돼 1995년 발효되면서 20년간 ‘국경 없는 EU’의 상징 역할을 해왔다. 22개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 등 26개국이 가입돼 있으나 EU 회원국 중 영국과 아일랜드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카터 방북때 백악관 승인 늦어 김정일 못만나”

美 국무부 제출 보고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2010년 북한 여류 미국인 아이잘로 말리 곱스 씨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은 백악관의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0년 8월25~27일 2박3일 간 방북해 곱스 씨를 데리고 나온 뒤 미 국무부에 제출한 방북 보고서에 이 같이 밝혔다.

이 방북 보고서는 국무부가 지난 31일(현지시간) 추가로 공개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에 포함됐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이 곱스 씨 석방을 위해 나와 내 부인의 방북을 원한다는 내용을 (2010년) 7월21일에 통보받았다”면서 “북한은 곱스 씨의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나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방북하면 김정일 위원장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측의 이러한 제안을 재확인한 뒤 백악관에 통보했다”면서 “그러나 이 요청은 8월 중순까지 승인이 나지 않았고 이 즈음에 북한은 나의 방북 지연으로 ‘곱스 씨가 병원에서 나와 교도소에 재수감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강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 혼

추천 회원

재 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운대역 10/58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 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